

『미암일기』와 『재영남일기』에 드러난 조선 전기 전라도·경상도 관찰사 일행의 누정 활용

Utilization of Pavilions by a Group of Governors in Jeolla-do and Gyeongsang-do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Revealed by *Miam Diary* and *Jaeyeongnam Diary*

임 한 솔*

Lim, Hansol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specific aspects of the utilization of the pavilion by a group of governors in the mobile office system of the early Joseon Dynasty through two diaries written in the 16th century. *Miam Diary* by Yu Hee-chun, a governor of Jeolla Province, and *Jaeyeongnam Diary* by Hwang Sa-woo, a chief aide of Gyeongsang Province, are important historical materials that reveal the utilization patterns of the pavilion by the governor, who was the decision maker and main user of governmental pavilion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wo diaries, the utilization of governmental pavilions was concentrated in the hot summer season, May to July,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temperature and humidity. While pavilions are mostly used as office and banquet places, some notable usage patterns have been identified. When there were several governmental pavilions in a town, the order of appreciation was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location and scenery, and the pavilions were also used as a place to encourage learning as governors taught Confucian scholars well. Governmental pavilions functioned as a device to visualize hierarchy through seating and accommodation arrangements. The authors of the diaries left comments on the famous pavilions and sometimes went to see the pavilions after asking for permission from the superior.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it reconstructed the relationship network and phases of the times of governmental pavilions scattered across the country through institutions and daily life.

주제어 : 관찰사 제도, 관영 건축, 관영 원림, 관영 누정, 객사

Keywords : Provincial Governor System, Governmental Architecture, Governmental Landscape Garden, Governmental Pavilion, Guesthous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조선의 개국과 지방 제도 개편은 전국 단위의 건축 활동을 일으켰다. 조선은 군현의 수를 줄이고 모든 곳에 수령을 파견해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하였는데,¹⁾ 이

와 함께 읍치마다 관아, 객사, 향교 등 관영 건축물을 일정하게 지음으로써 제도를 공간으로 가시화했다.²⁾ 당시 활성화된 관영 건축 중에서 누정은 필수 시설이 아니되 읍치의 상황에 맞춰 전국각지에 동시다발적으로 지어진 유형으로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한다.

조선 전기 관찬 지리지에 기록된 관영 누정의 수는

* Corresponding Author : hsollim@hanmail.net

본 논문은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 「조선시대 관영 원림 연구」의 III 장 1절을 수정 보완한 것임.

1) 고려시대에는 520여 개의 군현이 있었지만 그중 약 130개의 군현에만 수령을 파견한 반면, 조선시대에는 군현을 330여 개로 통폐

합하고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했다. 박종기, 『새로 쓴 5백 년 고려사』, 서울, 푸른역사, 2008, 204쪽.

2) 일련의 관영 건축 활동으로 인해 지방도시의 경관이 유사해지는 현상은 ‘획일화’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했다. 김동욱, 「획일화되는 지방도시」,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한국의 탐구 8,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999, 36~43쪽.

후대로 갈수록 증가한다.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 57개³⁾ 1481년 『동국여지승람』에 327개⁴⁾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553개⁵⁾의 관영 누정이 기록됐다. 수량의 증가는 실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1463년(세조 9) 세조는 황해도 관찰사가 금교역(金郊驛)에 누각을 새로 짓겠다 청하자 오히려 그 폐해를 들어 외방의 누각을 모두 헐어버리자고 했다.⁶⁾ 세조의 제안은 지방의 관영 누정 신축을 금하도록 공조에 명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⁷⁾ 세조의 언급에서 관영 누정이 사신 접객을 명분 삼아 수령이 여가를 보내고 이름을 남기는 수단으로 쓰였던 정황이 드러난다.

덕을 갖춘 지식인의 국가를 표방한 조선에서 사치향락의 우려를 동반하는 관영 누정이 다수 지어지고 관찬 지리지에 기록, 전파된 까닭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관찰사 일행’이라는 주체와 ‘활용’이라는 행위에 주목한다. 관찰사는 지방의 관영 건축을 책임지는 결정권자였다.⁸⁾ 또한 주기적으로 관할 읍치를 순찰하며 관아의 현황을 감독하고 활용하는 주체였다. 감영 제도는 전란 이후 하나의 읍치에 머무는 방식, 즉 유영(留營) 체제로 전환되는데,

3) 김창현, 『누정 산책』, 서울, 민속원, 2019, 21쪽.

4) 김동욱, 『朝鮮初期 地方都市內 樓亭의 形成過程과 建築特性』, 『경기대학교 논문집』 37, 경기대학교, 1995, 544쪽.

5) 박준규, 『韓國의 樓亭巧』, 『호남문화연구』 17,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87, 9쪽. 이외에도 조선 후기의 지리지인 『신증문헌비고』, 『대동지지』, 『동국여지비고』를 발췌해 포함시킨 국역본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조사한 기존 연구에서는 누정의 수량을 각각 885동(한국민족문화대백과), 847동(한동수)으로 집계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누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동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누정조의 사적(史的)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2021, 15쪽.

6) “황해도 관찰사가 금교역의 누각을 새로 지을 것을 청하니, 전지하기를, “대저 영작(營作)이란 가법계 일으킬 수가 없다. 역(驛)에 누각이 있는 것이 나라의 정사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지금 수령들이 백성의 일을 돌보지 아니하고 다투어 누각을 새로 지어서 술 마시고 시를 읊는 장소로 그릇 생각하고 있다. 홍제원(洪濟院)의 제천정(濟川亭)과 같이 사신이 왕래하면서 유람하고 즐기는 곳이라고 평계하고 다투어 웅장하게 지어서 재력(財力)을 다 써버린 것을 나는 아직도 그르게 여긴다. 외방(外方)의 누각을 모두 헐어버리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우찬성(右贊成) 구치관(具致寬)이 말하기를, “진실로 성상(聖上)의 말씀과 같이 수령이 다투어 누각을 새로 지어서 후세에 명성을 얻으려는 것은 매우 불가(不可)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은 것은 헐어버릴 필요가 없으니 새로이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세조실록』 권31, 세조 9년 8월 20일.

7) 『세조실록』 권31, 세조 9년 9월 3일.

8) 『경국대전』의 「공전」을 보면 지방관아를 지을 때는 왕에게 보고하고, 수리할 때는 관찰사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관아를 사사로서 영선하는 일이 후대로 갈수록 많아졌던 정황을 언급했다. 이로써 볼 때, 읍치를 직접 순찰했던 관찰사가 지방관아 건축의 실질적 책임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經國大典』 권6, 公典, 營繕; 丁若鏞, 『牧民心書』, 工典, 繕廡.

관영 누정이 활발히 지어졌던 조선 전기⁹⁾에는 머무는 방식이 아닌 돌아다니는 방식의 순영(巡營) 체제로 운영되었다. 관찰사의 직무처가 관할지의 지방관아를 옮겨 다니던 시절, 관찰사가 관영 누정의 활용 주체로서 갖는 의미와 영향력은 수령 못지않게 중요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전라도 관찰사 유희춘(柳希春, 1513~1577년)과 경상도 도사 황사우(黃士祐, 1486~1536년)의 일기를 검토한다. 일기에 담긴 조선 전기 관찰사와 그 보좌관인 도사가 관영 누정을 활용했던 양상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관찬 사료에 잘 드러나지 않는 관영 누정의 실질적 필요성과 문화적 활용 양상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2. 기존 연구 동향

관영 원림을 하나의 원림 유형으로 다룬 이은창의 논문¹⁰⁾ 이래 지방의 관영 원림과 누정은 주로 조경학과 건축학 분야에서 다루어졌다. 조경학 분야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전영옥의 연구¹¹⁾와 관아정원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살핀 황상돈의 연구¹²⁾, 객사 원림에 착목한 성재만의 연구¹³⁾가 대표적이다. 건축학 분야에서는 광한루, 영남루, 축석루 등 전국적으로 이름난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적 많은 성과가 쌓였다.¹⁴⁾ 1991년 지방자치제도 시행으로 관영 건축 연구가 본격화되어 200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견해¹⁵⁾를 관영 원림·누정 연구에 적용해도 그리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9) 본 논문에서 조선 전기는 임진왜란 이전을 뜻한다. 관찰사 제도가 조선 초기에 정립된 이래 16~17세기 전란을 거치기 전까지 대체로 유지되기 때문에 해당 시기를 묶어 조선 전기로 가리킨다.

10) 이은창, 『朝鮮時代의 官衙園林研究 : 嶺湖南地方의 官衙園林遺跡을 中心으로』, 『연구논문집』 29(1),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1984, 185~256쪽.

11) 전영옥, 『조선시대 官衙園林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12) 황상돈, 『朝鮮時代 官衙庭園에 關한 研究』,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황상돈·박찬용, 『조선시대 읍성의 관아정원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7(3), 한국정원학회, 1999, 53~66쪽.

13) 성재만, 『조선시대 객사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조경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최종희·성재만, 『조선시대 객사의 입지 및 배치, 조경적 특성: 벽제관, 전주객사, 금성관, 진남관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1), 한국전통조경학회, 2009, 74~83쪽.

14) 관영 누정의 개별 사례에 관한 건축사 연구는 단행본, 보고서, 학술논문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다. 그 성과를 제대로 요약하는 것이 본 논문의 전개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특정 문헌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지 않는다.

15) 이연도, 『2000년 이후 관아와 객사건축에 관한 연구성과 및 과제』,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8, 287~288쪽.

약술한 연구 동향으로부터 본 연구가 나아가려는 지점은 ‘유형’과 ‘사례’라는 단어 사이에 있다. 조경학에서 시도된 유형론은 특정 지리지를 정량 분석하거나 현전하는 일부 사례를 재료로 삼기에 관영 원림의 문화상을 입체적으로 그리는데 아쉬움을 남긴다. 한편 건축학에서 시도된 사례론은 특정 대상의 전모를 입체적으로 그리되 산재하는 사례들 사이의 관계망을 그리는데 여지를 남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상진이 수행한 일련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상진은 조선시대 객사의 관련 제도와 건축 현상을 폭넓게 다룬 박사학위논문에서 조선 전기 객사 누정과 별관의 발달을 논한 바 있다.¹⁶⁾ 여기서 ‘외방사신의 증가’에 지방 수령이 대응하는 방책으로서 접객 공간이 다수 지어졌음을 제시하였다. 보다 주목할 것은 그 후속 연구다. 여상진은 다수의 논문에서 관찰사의 일기 자료를 통해 관영 시설의 이용 양상을 고찰한 바 있다.¹⁷⁾ 이러한 시도는 제도에 복무하는 특정 인물이 다수의 공간을 연달아 활용했던 사실을 드러내는데, 이는 각기 흩어져 있는 사례를 일상의 차원으로 엮어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관영 누정을 다루었던 기존의 유형론과 사례론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자 제도와 일상에 주목하며, 이를 위해 조선 전기에 작성된 두 일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1-3. 연구 자료와 논문 구성

본 연구의 대상 자료는 유희춘이 1567~1577년(선조 즉위~10)에 쓴 『미암일기(眉巖日記)』와 황사우가 1518~1520년(중종 13~15)에 쓴 『재영남일기(在嶺南日記)』다. 두 일기는 모두 16세기의 개인 일기이며, 『재영남일기』는 저자가 관직에 있을 때 쓴 사환일기(仕宦日記)로 분류되고 『미암일기』는 관직에 없을 때를 포함

하므로 보다 넓은 범주로서 생활일기로 분류된다.

여상진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관인 관찰사, 도사, 수령, 판관이 업무일지를 넘어 개인일기로서 작성한 일기류는 총 56종이며 15세기에 작성된 것이 1종, 16세기에 작성된 것이 7종이다.¹⁸⁾ 그중 관찰사와 도사의 일기는 연구에서 다루는 두 일기 외에도 강원도와 충청도의 도사를 지낸 김개국(金蓋國)의 『관동록(關東錄)』과 『호서록(湖西錄)』이 있는데, 김개국의 일기는 정유재판과 얽혀 있고 너무 간략해 참고하기 좋지 않다.¹⁹⁾ 따라서 일기를 통해 조선 전기 관찰사 일행의 순행을 살피고자 한다면 『미암일기』와 『재영남일기』는 대안을 찾기 어려운 요긴한 사료라 할 수 있다.

『미암일기』는 임진왜란으로 사초(史草)가 소실돼 『선조실록』 편찬에 어려움이 있을 때 중요 자료로 쓰였을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고 세세하며 신뢰받았다. 『미암일기』는 현대의 각종 역사 연구에서도 다루어져 왔는데, 건축사 분야에서도 사대부 가옥의 연구 자료로 주목된 바 있다.²⁰⁾ 『미암일기』는 원래 14책이었으나 현재는 11책만 전해지며 원본은 후손이 소장하고 『미암집』 목판과 함께 보물로 지정되었다. 1938년 조선사편수회가 종가 소장본을 저본 삼고 『미암집』에서 일부를 보완해 『미암일기초(眉巖日記草)』라는 영인본 5책을 냈는데, 담양향토문화연구회가 1992~1996년에 이를 국역했다.²¹⁾

『재영남일기』는 『미암일기』만큼 널리 알려지고 활용되진 못했으나 “16세기 경상도의 지역사정 및 지방통치의 구체적 내용을 살피기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자료”²²⁾로 꼽힌다. 이 일기는 황사우가 경상도 관찰사의 바로 아래 관원인 종5품 도사(都事)로 부임하며 쓰

18) 여상진, 「지방 邑治施設 복원 및 활용을 위한 조선시대 지방관의 日記類분석 기초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7),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 2677~2679쪽.

19) 여상진, 앞의 글, 2679쪽.

20) 이호열, 「16世紀末 士大夫家 客廳 造營事例 研究: 柳希春의 『眉巖日記草』를 中心으로」, 『건축역사연구』 1(2), 1992, 9~38쪽; 정정남, 「16.17세기 사대부주택의 공간구성과 활용」,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이왕기, 김석희, 「미암일기에 나타난 유희춘가옥의 건축적 추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8(4),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6, 13~20쪽.

21) 『미암일기』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에 공개된 조선사편수회 영인본으로 검토하였고, 번역문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유희춘 저, 담양향토문화연구회 편역, 『眉巖日記草』 제1~5집, 1992~1996; 『미암일기』의 서지 정보와 이본에 관한 사항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 송재용, 「『미암일기』의 서지와 사료적 가치」, 『퇴계학연구』 12, 단국대학교퇴계학연구소, 1998, 117~151쪽.

22) 심재우, 『재영남일기』 해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s://kyudb.snu.ac.kr/>.

16) 여상진, 「朝鮮時代 客舍의 營建과 性格 變化」,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31~142쪽.

17) 여상진, 「18世紀 忠淸監司의 監營處 및 道內 邑治施設 利用: 交龜, 巡歷 및 行禮를 中心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9(1), 한국산학기술학회, 2008, 143~153쪽; 여상진, 「『完營日錄』에 나타난 19C초 전라감사의 집무와 전주부 관영시설 이용」,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2),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 658~665쪽; 여상진, 「지방 邑治施設 복원 및 활용을 위한 조선시대 지방관의 日記類분석 기초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7),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 2676~2686쪽; 여상진, 「18C末 황해감사 徐邁修의 집무와 해주목 관영시설의 이용: “海營日記”(徐邁修)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9),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 4244~4252쪽; 여상진, 「18~19C초 황해도 관찰사의 순력(巡歷)과 도내 읍치시설 이용」,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9),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5835~5843쪽; 여상진, 「18세기 함경도 관찰사의 순력(巡歷) 노정과 주요 업무」,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9), 한국산학기술학회, 2017, 84~91쪽.

기 시작한 일기이므로 ‘재영남’이라는 제목이 붙었다.²³⁾ 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중이며 분량은 1책(129장)이다.²⁴⁾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에서 2006년 국역본을 발간했다.

두 일기에는 관찰사와 도사가 머물렀던 지역과 공간이 성실하게 기록돼 있다. 최고위 지방관이 관찰지를 직접 돌아다니며 살피는 순행의 특성상 ‘어디에 있었는지’가 기록의 대상이 되는 기본 정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의 일기는 현대인이 연상하는 협의의 일기와 달리 주관적 진술보다 행력(行歷)을 시간순으로 서술하는 편이었다.²⁵⁾ 따라서 예외적 상황은 비교적 꼼꼼히 기록됐으나 당연히 여겨진 생활상이나 누정에서의 감상 같은 주관적 내용은 상세하지 않다.

두 일기의 작성 시점은 52년간의 차이가 난다. 그 사이 관찰사 제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순행의 공간 활용에 있어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턴이 확인된다. 다만 유희춘은 관찰사, 황사우는 도사였으므로 직급에 따른 공간 활용 차이가 엿보이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순행과 누정 활용의 주체를 관찰사 1인으로 무리하게 제한하기보다 도사를 포함한 ‘관찰사 일행’으로 보고자 한다.

본문은 세 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2장에서는 순행에 따른 관찰사의 고된 업무 실태를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살핌으로써 누정의 실질적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두 일기의 내용은 3장과 4장에서 본격적으로 살폈다. 3장에서는 누정의 활용이 집중된 시기를 검토하였고, 4장에서는 그 구체적 양상을 살폈다. 각 장에서는 『미암일기』와 『재영남일기』 순으로 주요 기록을 정리해 제시한 뒤 이를 종합하는 형식을 취했다.²⁶⁾

2. 조선 전기 순행의 실태와 누정의 필요성

관찰사의 순행은 도 총책임자의 공식 행차에 걸맞은 규모와 격식을 갖췄다. 15~16세기 관찰사의 순력 행차는 대략 말 50필 안팎의 규모로 파악된다.²⁷⁾ 관찰사는

먼 행로에도 불구하고 최상급 이동 수단인 가마를 타기도 했으며²⁸⁾ 순행의 경로를 미리 계획하고 선문(先文)을 보내 해당 관할지의 수령이 일행의 식사와 머물 장소를 때맞춰 준비하도록 했다.²⁹⁾ 관찰사의 순행은 소읍에게 부담이 가는 일이기도 했지만³⁰⁾ 폐단으로 언급되었던 조선 후기와 달리 조선 전기에는 오히려 위엄을 갖추고 더 자주 해야 하는 일로 언급되곤 하였다.³¹⁾

그러나 순행은 엄청난 업무 강도가 따르는 고된 일이었다. 1571년 8월, 전라도를 순행 중이던 유희춘은 “내가 여러 읍에서 머무르지 않고 번거로운 업무 속에 달려 다니면서, 소읍(小邑)에서는 1일만 머무르고 대부(大府)에서도 불과 3일만 머물러 길도 험하고 먼 데를 다니느라 기운이 피곤하고 안색도 초췌해지니 건강에 아주 안좋은 일”³²⁾이라 하고 대부에서 머무는 일정을 늘리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대사헌으로 제수되어 관찰사를 그만두고는 “비로소 극무에서 벗어나 한가로워지니 몸에도 다행이다”³³⁾라고 썼다.

당상관은 대체로 노년의 문인이었다. 평생 글을 읽고 쓰며 앉아서 공부하고 일해온 양반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매일같이 거처를 옮긴다면 그것만으로도 고난이었을 것이다.³⁴⁾ 가마나 말을 타고 하루 평균 50여 리를 이동하면³⁵⁾ 엄청난 양의 문서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유희춘은 여산에서 전라도로 진입해 관원들과 첫 공식 인사를 나누자마자 71명이 보고서[報狀]와 백성들의 청원서[所志] 2~300장을 가져와 날이 저물기 전 처

27) 김경숙, 「16세기 전라도 관찰사의 순행길」,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역사문화학회, 2010, 47쪽.

28) 가마를 탈 수 있는 권한은 양반인 관료 중에서도 문신 당상관에 게만 주어졌다. 그러다 숙종 37년 감사와 유수에 한해서는 무관이나 읍관이라도 가마를 타는 것이 허락되었다. 정연식, 「조선조의 탈것에 대한 규제」, 『역사와현실』 27, 한국역사연구회, 1998, 187~190쪽.

29) 김경숙, 앞의 글, 45~52쪽.

30) 『미암일기초』 1571년 8월 27일자를 보면, 전라도 관찰사 유희춘은 조정에서 내려온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소읍에 하루를 더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소읍에 더 머무는 것이 폐가 된다고 판단하여 더 머물지 않고 떠나기로 결정을 반복하였다.

31) 이수건,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서울, 민음사, 1989, 207쪽.

32) “以爲余不留列邑, 而驅馳劇務之中, 小邑只留一日, 大府亦不過數三日, 路險且長, 氣因容悴, 甚非養生之道” 유희춘, 『미암일기초』, 1571년 8월 25일.

33) “始離劇就閑, 於身亦幸” 유희춘, 『미암일기초』, 1571년 10월 17일.

34) “감사에 임명되는 자는 거개가 나이 늙은 사람들이어서, 이들로 하여금 2주년간에 걸쳐 온 도내를 순행 발섭(跋涉)하는 노고를 겪게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오니, 구제에 의하여 1주년으로 정하게 하옵소서.” 『세종실록』 권82, 세종 20년 8월 6일.

35) 김경숙, 앞의 글, 60쪽.

23) 『재영남일기』의 기본 사항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 이수환, 「조선전기 慶尙監司와 都事의 巡歷과 통치기능: 在嶺南日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3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513~541쪽.

24) 『재영남일기』 원문과 번역문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황위주 역, 『(脫草譯註)在嶺南日記』, 대구, 嶺南文化研究院, 2006.

25) 심경호,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종류와 기록자 계층」, 『동아한학연구』 14,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2020, 396쪽.

26) 『재영남일기』의 작성 시기가 더 이르지만 『미암일기』 서술상 뒤에 배치한 까닭은 관찰사가 아닌 도사의 일기이기 때문이다.

리했다.³⁶⁾ 강진에서는 하루 만에 보고서 6~7권과 청원서 18권을 결재하고 다음 고을로 떠나기도 했다.³⁷⁾ 이동과 문서 업무 사이에는 끊임없이 서신을 주고받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났으며 때로는 지방 유지의 경조사에 참여했다. 유희춘이 ‘극(劇)’이라는 문자로 가리킨 관찰사의 고된 업무 패턴은 황사우의 『재영남일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교지를 통해 관찰사들에게 감영에 머무르기보다 곳곳을 돌아보길 권하곤 했다.³⁸⁾

순행하는 관찰사의 입장에서는 짧게 머물더라도 최선의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이다. 쾌적한 온도와 습도, 적당한 규모와 답답하지 않은 공간감, 심신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문화 자원을 갖추었다면 대략 좋은 환경이 아니었을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두 일기에 담긴 누정 활용의 실재를 분석해보겠다.

3. 관찰사의 순행에서 누정의 활용 시기

3-1. 전라도 관찰사 유희춘의 『미암일기』

유희춘은 여산으로 들어산 1571년 3월 21일부터 직무가 끝난 10월 15일까지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했다. 전라도의 본영(本營)³⁹⁾인 전주를 기준점으로 삼았을 때 유희춘의 순행은 총 4차례였다. 기존 연구에서 조사한 순행의 전모는 <표 1>과 같다.

유희춘이 재직한 205일 중에서 본영인 전주에 머문 시간은 27일뿐이고 나머지 178일은 다른 고을을 옮겨 가며 지냈다. 유희춘은 직임을 마친 후 9개 고을은 들

36) 유희춘, 『미암일기초』, 1571년 3월 21일. 관찰사의 순행과 고을 백성의 소치 접수에 관한 내용은 다음 논문에 자세하다. 김경숙, 「15세기 정소(呈訴) 절차와 관찰사의 역할」, 『역사와 현실』 59, 한국 역사연구회, 2006, 77~82쪽.

37) 유희춘, 『미암일기초』, 1571년 8월 10·11일.

38) “백성을 친애하는 자로는 수령보다 더 가까운 것이 없으나, 수령 또한 자유로이 못하는 것이 있으니, 이는 위에 방백과 여사가 있기 때문이다. 방백의 임무가 어찌 한곳에만 앉아 있는 것이겠는가. 말로는 감영(監營)에 머물러 수작하며 문부(文簿)만 왕래하면 된다고 하지만, 반드시 궁벽한 산골이나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두루 편력하여 한결같이 절고(疾苦)를 위문하고 폐단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선조실록』 권72, 선조 29년 2월 25일.

39) 여기서 본영(本營)이란 관찰사가 본거지로 삼았던 도 내의 주요 읍치를 가리킨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관찰사의 집무처라는 뜻으로 ‘감영(監營)’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시기는 1593년(선조 26)이다. 그전까지 관찰사가 머무는 곳, 즉 영(營)에 해당하는 곳은 본영(本營), 유영(留營), 순영(巡營) 등으로 지칭됐으며, 문책상 특정 시설이 라기보다 평양, 전주와 같은 읍치 단위를 가리키는 용어에 가까웠다. ‘감영’의 의미가 관찰사의 집무처로 정착한 시기는 전국의 감영 시설이 자리 잡아가던 17세기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감영’이란 관찰사가 지휘하던 행정 기관을 뜻하는 말로 국한해 쓰고, 도별로 두었던 주요 읍치는 ‘본영’이란 말로 가리킨다.

표 1. 1571년 유희춘의 순행 일정

차수		1차	2차	3차	4차	합계
일시	출발일	3월 26일	5월 17일	7월 9일	9월 16일	-
	도착일	5월 11일	7월 5일	9월 5일	10월 14일	-
	기간	44박45일	47박48일	55박56일	28박29일	178일
경유지	본영	1	1	1	1	4
	목	2	3	1	2	8
	부	4	2	3	1	10
	군	4	2	5	1	12
	현	11	10	16	8	45
합계	22	18	27	13	79	
거리	순행일	27일	21일	27일	12일	87일
	총거리	1,340리	1,170리	1,310리	550리	4,370리
	1일거리	61리	56리	49리	46리	53리

* 출처: 김경숙, 「16세기 전라도 관찰사의 순행길」,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역사문화학회, 2010, 60쪽.

* 1차 순행의 도착일을 5월 6일에서 5월 11일로 수정하였음. 5월 6일에 전주에 들어온 유희춘이 다음 날 아침 여산으로 떠나 5일을 보내고 봉안사와 함께 5월 11일에 전주에 들어오기 때문.

* 추가된 여정인 전주~여산 간 왕복 거리는 원 표에서 참고했다는 <여지도>의 정확한 문헌 정보를 알 수 없어 반영하지 않았음.

* 김경숙의 표에서 제목과 항목명을 일부 수정.

지 못하였다고 기록하였다.⁴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57개 군현 중에서 제주도의 세 군현을 제외한 54개 중 42개를 174일에 걸쳐 돌아다닌 것이다.⁴¹⁾ 한번 이동하면 50리가량을 이동하였고 총거리는 4,370리, 현재 단위로 환산하면 1,748km에 해당한다. 59세의 고위 관원이 감당한 여정으로서 상당한 수준이다.

유희춘이 순행에서 누정을 활용한 기록은 첫 번째 순행의 끝 무렵인 5월 9일부터 등장한다. 실록을 봉안하기 위해 전주에 내려오던 봉안사를 맞이하러 전라도의 최북단인 여산에 머물던 유희춘은 이날 청허정(淸虛亭)에 올라가 낮잠을 잤다. 청허정은 여산 객사의 동쪽에 있던 누정이다.⁴²⁾ 이날부터 유희춘이 임질에 걸렸음을 알고 누에 오르기를 꺼리게 되는 7월 17일까지 68일 중 누정이나 루를 활용한 기록이 등장하는 날은 46일이다.⁴³⁾ 누정의 명칭을 따로 쓰지 않은 경우에는 루(樓) 또는 소루(小樓)로 지칭되었으며, 이 기간 외에 유희춘이 누정이나 루에 오른 기록은 보기 어렵다.

40) 유희춘, 『미암일기초』, 1571년 10월 16일.

41) 유희춘은 일기에서 9개 고을을 들지 못했다 쓰고 10개 고을의 이름을 언급하였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군현과 비교해보면 실제로는 12개 고을을 들지 못했다. 김경숙, 「16세기 전라도 관찰사의 순행길」,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역사문화학회, 2010, 60~61쪽.

4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4, 전라도, 여산군, 누정.

43) 1571년 5월 9·11·12·13·18·19·22·23·24·25·26·27·28·29일, 6월 3·5·6·8·9·10·12·13·14·16·17·19·20·21·22·23·24·25·26·27·28·29·30일, 7월 2·5·6·8·9·12·14·15·16일.

3-2. 경상도 도사 황사우의 『재영남일기』

황사우는 문경에 들어선 1518년 12월 17일부터 풍기의 본가로 떠나는 1520년 1월 24일까지 경상도 도사(都事)를 역임했다.⁴⁴⁾ 종5품인 도사는 감영의 두 번째 직급으로 관찰사의 제반 업무를 보좌하고 때로는 대리하였다.⁴⁵⁾ 황사우 역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관찰사와 대부분의 일정을 함께 했는데, 관찰사가 아플 경우 문서 업무를 대신하거나 관찰사와 순행 동선을 나누어 잠시 갈라졌다가 합류하기도 하였다. 황사우는 관찰사와 떨어져 있을 경우 관찰사의 위치를 일기에 기록했다.

황사우가 재직한 392일 중에서 본영인 상주에 머문 것은 총 6차례이고 64일에 해당한다.⁴⁶⁾ 황사우가 기록한 순행은 유희춘이 기록한 순행보다 일정이 불규칙적이고 복잡하다. 재임 기간 중 관찰사가 바뀌었으며,⁴⁷⁾ 경상도를 좌도와 우도로 나누었다가 다시 합치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⁴⁸⁾ 게다가 황사우의 본가가 풍기에 있었고 두 번째 관찰사의 본가는 용궁에 있어 순행의 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관할 구역이 통폐합되고 본가가 가깝다는 예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황사우와 관찰사는 재직 중에 무려 85개 군현을 순행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경상도의 67개 군현보다 그 수가 많다. 점진적으로 폐지되던 속현이 아직 남아있던 까닭이 크다.⁴⁹⁾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군현의 명칭을 비교해보면 기장현과 예산현 2개를 제외한 65개 군현이 경로에서 확인된다.⁵⁰⁾ 사실상 거의 모든 경상도 군현을 순행하였던 것

44) 황사우의 임기는 1519년(중종 14) 12월 22일에 끝났지만 후임 도사가 오지 않아 직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45) 관찰사 다음의 중요 직책이었던 도사의 지위는 17세기부터 감영의 체제가 유영화(留營化) 됨에 따라 관찰사와 판관 사이에 끼어 한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34권,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5, 185~186쪽.

46) 황사우의 재임 기간에는 비교적 복잡한 상황과 일정 때문에 경상도를 크게 돌고 상주에 돌아와서도 상주를 잠시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는 대략 한달 이상 상주를 떠나 있었던 여정을 '순행' 개념으로 보고 그 수를 6차례로 제시하였다.

47) 1519년 4월 25일에는 전임 감사 한세환이 한성판윤으로 옮기고 신임 감사 문근이 부임했다.

48) 1519년 6월 9일에서 12월 1일까지 약 6개월간 도가 좌우로 바뀌어, 황사우와 관찰사 문근은 서쪽의 경상우도를 맡았다. 이 기간에 좌도 관찰사로 부임했던 참판 이항(李沆, 1474~1533)과 만나 협의하고 좌도에 해당하는 군현을 도는 등 순행 일정이 교란되었다.

49) 85개 군현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일치하는 65개, 병영 2개(좌병영과 우병영), 속현 14개(내성현, 다인현, 단밀현, 수산현, 신번현, 약목현, 은풍현, 팔거현, 풍산현, 하빈현, 해안현, 해평현, 화원현, 효령현), 폐현 1개(공성현),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확인되지 않는 지명 3개(일선현, 장천현, 진천군)에 해당한다.

이다. 황사우는 유희춘과 마찬가지로 안동, 진주 등 큰 고을과 상주 인근 지역, 연고지는 자주 다니고 오래 머물렀지만 다른 읍은 1회 순행에 1~2일 머무는 것이 보통이었다.⁵¹⁾

황사우는 관찰사와 동행할 경우 자신의 위치보다 관찰사의 위치를 우선적으로 기록했다. 누정이나 루의 활용 역시 마찬가지였다. 황사우가 본인의 집무처나 숙소를 남청방(南廳房)이나 중대청(中大廳) 등으로 따로 기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따로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함께 있었거나 가까운 곳에 있다가 관찰사의 집무공간을 오갔던 것으로 보인다.⁵²⁾

관찰사, 그리고 황사우가 누정이나 루를 활용한 날짜 역시 대부분 여름이다. 누정/루의 활용 기록은 5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69일 동안 집중적으로 등장하며 그중 42일간 누정/루의 활용 기록이 보인다. 그 외 기간에서는 총 열흘뿐이며 산발적이다.⁵³⁾ 황사우는 누정의 명칭을 따로 쓰지 않은 경우 『미암일기』와 같이 대부분 루(樓), 간혹 소루(小樓)로 표현하였다.

3-3. 소결

두 일기에서 관영 누정은 혹서기인 5~7월 사이의 약 2개월간, 집무와 연회의 공간으로 집중 활용되었다. 유희춘은 5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68일 중 46일, 황사우는 5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69일 중 42일 동안 일기에 누정 또는 루의 활용을 기록하였다. 절기상 5월 5일이 입하(立夏), 7월 22일이 대서(大暑)다. 누정의 활용이 대략 입하부터 대서 직전, 연중 가장 더운 시기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높고 트인 누정/루의 건축 형태가 더운 계절에 적합한 업무 환경을 제공했음은 쉽게 짐작되는 바이다. 유

50) 황사우는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관찰사와 갈라져 서로 다른 경로로 순행을 하고 17일에 다시 만나는데, 관찰사의 경로 중에서 황사우가 기준에 들지 않았던 고을은 하동현 한 곳뿐이다.

51) 이수환, 「조선전기 慶尙監司와 都事의 巡歷과 통치기능: 在嶺南日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3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530쪽.

52) 황사우는 종5품 도사로서 수령 중에서는 현령과 동일한 품계로 직급이 낮지 않았다. 게다가 종종 관찰사의 명에 따라 차운시를 써 현판으로 거는 등 글솜씨를 인정받기도 했다. 1519년 7월 2일 일기에는 관찰사와 병사가 만나서 생기는 술자리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아프다는 구실로 관찰사보다 출발을 늦추기도 하였는데, 이로써 볼 때 좌기(坐起) 시에 관찰사 등 당상관과 함께 하지는 않되 연회 등에서 동석하는 것은 보통이었다고 생각된다.

53) 『재영남일기』에서 황사우가 도사로 재직했던 기간 중에 누정/루의 활용이 기록된 날짜는 다음과 같다. 1519년 2월 1·6일, 5월 5·8·10·16·17·18·19·21·22(관어대)·24·26·28일, 6월 3·5·7·8·9·10·11·13·14·15·16·18·19·20·21·22·23·24·25·26·27일, 7월 3·4·6·7·8·9·10·12·14일, 8월 9·20일, 9월 12·20·22·23일, 10월 26일, 11월 21일.

희춘은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남겼다. 루가 없는 고을에 이르면 유희춘은 “루가 없기 때문에 다만 동헌에 앉아 편복을 입지 않을 수 없었다”⁵⁴⁾라지 “동헌만 있고 루가 없어 더위를 피할 수가 없기에 방 안에 평상을 놓게 했다”라고 썼다.⁵⁵⁾ 더위 때문에 “루에 올랐다가 가랑비 때문에 습기가 있어서 다시 방으로 내려왔다”⁵⁶⁾라든지 “뜰이 습하여 출좌는 하지 않고 방에만 있었다”⁵⁷⁾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는 누정/루의 생활 환경이 습도와도 밀접했음을 보여준다.

대서를 앞둔 7월 17일, 유희춘은 임질기를 느끼고 그 이유가 순행을 할 때 30리를 가며 오줌을 참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다음날 순행을 함께 하던 전속 의원인 심약(審藥) 김복희는 유희춘이 하부가 헛헛하고 차며 대소변이 잦은 이유를 묻자 “날마다 높은 루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쏘이는 것이 걸으로는 상쾌하지만 하부는 실상 소랭(疎冷)해진 것이니, 앞으로는 과, 소금을 써서 찜질을 하고 다시는 루에 앉지 말고 다만 창밖에 앉아 예만 받고 방으로 도로 들어가서 공사를 처결해야 한다”⁵⁸⁾라고 답했다. 이때부터 유희춘은 루에서 집무를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몸을 사렸다. 그 뒤 유희춘은 해안 고을에서 너무 높은 동헌에서 해풍을 쏘여 편치 못하다고 기록하기도 했으며,⁵⁹⁾ “찬 것이 두려워 대청으로 나가 앉지 못하고 그냥 온돌방에 앉아있다”⁶⁰⁾라고 쓰기도 했다. 업무 환경으로 누정을 애용했던 것이 지나쳐 건강을 해치고 말았던 것이다.

4. 순행에서 누정의 구체적 활용 양상

4-1. 전라도 관찰사 유희춘의 『미암일기』

(1) 명칭이 기록된 누정과 그 위치

『미암일기』에 누정명이 기록된 사례는 15개 고을, 17개 건물이다. 3건을 제외하면 모두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명칭과 위치가 확인된다. 10건은 객관(客館)·

54) “無樓故只坐東軒，不免便服.” 유희춘, 『미암일기초』, 1571년 7월 4일.

55) “只有東軒，無樓可避暑，乃設平床於房內.” 유희춘, 『미암일기초』, 1571년 7월 10일.

56) “登樓，以微雨濕氣還下房.” 유희춘, 『미암일기초』, 1571년 7월 16일.

57) “是日，以庭濕，不爲出坐，只在房內.” 유희춘, 『미암일기초』, 1571년 6월 2일.

58) “遂日坐高樓納涼，外雖可喜，而下實疎冷，請自今以葱鹽，蒸熱熨之，更不宜坐樓，只坐窓外受禮數，還入房決公事.” 유희춘, 『미암일기초』, 1571년 7월 18일.

59) “坐太高之軒，受海風，夕覺不安.” 유희춘, 『미암일기초』, 1571년 7월 21일.

60) “以畏冷，不敢出坐大廳，只坐房內溫突.” 유희춘, 『미암일기초』, 1571년 7월 22일.

공관(公館)을 기준으로 위치가 기록되어 객사와 가까웠다고 보이며 나머지 4건 중 임피 집승루는 동헌을 기준으로, 광양 주변루는 남쪽 문루 자체로, 전주 쾌심정은 제남정에서 4리 떨어진 곳으로, 남원 광한루는 부남쪽 2리 정도라 쓰였다.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미암일기』에 명칭이 기록된 누정의 목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위치 기록

지역	누정명	일기 날짜	『승람』의 위치 기록
여산군	청허정(淸虛亭)	5월 9일	在客館東
전주부	매월루(梅月樓)	5월 11일	在客館東北隅
	진남루(鎭南樓)	5월 12일	在公館後園
	쾌심정(快心亭)	5월 13일	自濟南亭距四里
나주목	무이루(撫夷樓)	5월 23·25·29일, 6월 5·6·14·16일	在客館東
무장현	읍취루(挹翠樓)	6월 8일	-
함평현	희우정(喜雨亭)	6월 12일	在客軒東
화순현	강학루(降鶴樓)	6월 19일	-
능성현	봉서루(鳳栖樓)	6월 20일	在客館東
광양현	주변루(籌邊樓)	6월 24~25일	縣城南門樓
곡성현	월화루(月華樓)	6월 28일	在客館北
남원도호부	광한루(廣寒樓)	6월 30일	府南二里許
익산군	청심루(淸心樓)	7월 9일	在客館東
임피현	집승루(集勝樓)	7월 12일	在東軒北
만경현	죽정(竹亭)	7월 14일	-
홍덕현	배풍헌(培風軒)	7월 21일	在客館西
광산현	희경루(喜景樓)	7월 28일	在客館北

* 『승람』에 누정명이 달리 적힌 사례는 다음과 같다.

매월루(梅月樓)→매월정(梅月亭), 봉서루(鳳栖樓)→봉서루(鳳棲樓), 희경루(喜景樓)→희경루(喜慶樓)

(2) 고위 관원의 접객: 전주 매월루·진남루·쾌심정

유희춘이 자신보다 품계가 높은 관원을 대한 것은 정2품 실록 봉안사를 모셨던 일이 유일하다. 관찰사에 게 오리정(五里亭)은 보통 맞이하는 예를 받는 곳이지만 1571년 5월 10일 봉안사가 왔을 때는 실록과 상급자에게 예를 드리는 곳으로 쓰였다.

다음날 전주에 들어선 유희춘과 봉안사는 하루에 한 곳씩 전주의 대표적 관영 누정을 찾았다. 첫날인 5월 11일에 객사 동북쪽 구석에 있던 매월루(梅月樓), 12일에 객사 후원에 있던 진남루(鎭南樓), 13일에는 전주부성 밖 남쪽에 떨어져 있던 쾌심정(快心亭)에 올랐다.

매월루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루(樓)’가 아닌 ‘정(亭)’으로 기록되어 있고 동북쪽 구석[東北隅]이라는 위치 표현으로 볼 때 비교적 작은 누정으로 추정된다. 당시 객사 대청에 실록을 보관하고⁶¹⁾ 동헌에 봉안사, 서헌에 유희춘이 머물렀으니⁶²⁾ 첫날은 봉안사의 숙소가

61) 유희춘, 『미암일기초』, 1571년 5월 14일.

14 논문

까운 누정에서 연회를 벌였다고 볼 수 있다. 해질녘인 유시(酉時)에 매월루에 오른 봉안사와 유희춘 등은 늦도록 술자리를 갖고 풍악을 들었다.

진남루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공관후원(公館後園)이라 위치가 쓰였으며 성현(成俔, 1439~1504)의 기문에 “객관의 뒤편으로 숲 사이에 누각이 얼핏얼핏 드러나 보이는데”⁶³⁾라는 구절이 있어, 객사 중앙 뒤편에 식재를 갖춰 마련되었던 누정으로 생각된다. 유희춘은 “높고 상쾌하고 광활하기가 백수십 명이 앉을만하다”⁶⁴⁾라고 그 광경을 묘사하였다. 진남루는 매월루보다 규모가 크고 경관이 트였던 누정으로 볼 수 있다. 일행은 이 누정에 점심 뒤에 모여 연회를 열고 어두워져서 자리를 끝냈다.

쾌심정은 성 밖에 위치한 누정이었다. 유희춘은 “정(亭)에 이르니 큰 강물이 내려다보이고 위에는 한벽당(寒碧堂)이 있다”라고 주변 경관을 언급하였다.⁶⁵⁾ 봉안사와 유희춘은 아침을 먹고 출발해 쾌심정에서 점심을 먹었으며, 오후 3~5시에 해당하는 신시(申時)에 유희춘은 성으로 들어오고 봉안사는 한벽당에 머물렀다.

두 인물이 3일간 매월루, 진남루, 쾌심정을 활용한 양상은 위치, 규모, 경관, 시간 측면에서 나름의 특성이 있다. 첫날은 저녁에 숙소 뒤 작은 누정에서, 둘째날은 낮부터 보다 격식을 갖춘 공관의 누정에서, 셋째날은 아침부터 강물을 굽어보는 명승지의 누정에서 식사와 담소, 연회를 즐겼던 것이다.

(3) 직급에 따른 자리 배치: 광산 회경루

7월 28일 광산의 회경루(喜景樓)에 관찰사 유희춘을 필두로 병사, 좌수사, 우수사까지 전라도의 최고 관원 넷이 모두 모였다. 이때는 누정 내에서 관원 사이의 위계를 드러내는 자리 배치가 기록되었다. 관찰사 유희춘이 먼저 오르고 병사가 다음에 올라 함께 북벽(北壁)에 앉았으며, 좌수사와 우수사가 다음으로 올라 함께 동벽(東壁)에 앉았다.⁶⁶⁾ 방위에 따라 북-동-서-남 순으로 위계를 설정하는 것은 공간 배치에 예를 구현하는 전통적 방식으로 『경국대전』 등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

다.⁶⁷⁾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의 기문에 따르면 회경루는 5×4칸 규모로 주변에 대숲과 연못, 활터를 갖춘 누정이었다.⁶⁸⁾

(4) 도사의 등루(登樓)를 특별히 허락: 무장 읍취루

10월 15일 무장현(茂長縣)에서 유희춘은 왕의 탄신일 진상품을 봉하는 일의 예(禮)가 지극히 중대하므로 도사에게 특별히 루에 올라가서 감독하도록 명했다.⁶⁹⁾ 원문엔 단순히 ‘루(樓)’라고 쓰였지만, 이때 루는 지난 6월 무장에서 유희춘이 올랐던 읍취루일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짧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먼저 도사는 관찰사 곁에서 관찰사의 허락 없이 누정에 홀로 오를 수 없었다. 그리고 누정에 오른다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특별한 권위나 권한을 갖는 장치가 될 수 있었다.

(5) 유생 시절을 반추: 나주 무이루

『미암일기』에 유독 자주 등장하는 누정은 나주의 무이루(撫夷樓)다. 나주 객사의 동쪽에 있었던⁷⁰⁾ 무이루는 유희춘이 일곱 차례나 언급하고 오른 바 있다. 그 까닭은 유희춘의 과거사에 기인한다. 유희춘은 유생 시절 부(賦)를 짓는 시험에 네 차례나 합격하고 그중 세 번은 장원을 해 무이루에서 수령의 술을 받았던 추억이 있다.⁷¹⁾ 나주는 유희춘이 오래 머무른 대표적 고을인데, 유희춘은 나주에서 무이루 외에도 동정(東亭)⁷²⁾, 서헌의 소루(小樓) 등을 언급한 바 있다.

(6) 경관의 감상과 개입: 남원 광한루, 만경 죽정

유희춘이 경관의 감상을 남긴 사례는 많지 않지만, 그중 현재 남아있는 남원의 광한루가 있다.[그림 1] 유희춘은 광한루에 올라 “그 광대하고 탁 트인 것이 비할 데가 없다”라고 평했다.⁷³⁾ 보다 흥미로운 기록은 현

67) “外方，則觀察使·節度使竝北，正三品節度使則東。”『經國大典』 권3, 禮典, 京外官會坐.

68) “南北五東西四，宏敞壯麗，甲於東方。東臨大路，西俯脩篁，鑿池其北，種以芰荷，又作射場於東，以爲觀德之所。”『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전라도, 광산현, 누정.

69) “以誕日進上方物監封，事禮至大，故余特令都事登樓而爲之。” 유희춘, 『미암일기초』, 1571년 10월 15일.

7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전라도, 나주목, 누정.

71) 유희춘, 『미암일기초』, 1571년 5월 25일.

72) 유희춘, 『미암일기초』, 1571년 5월 29일. 이곳에서 봉안사의 전별연을 했다. 동정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나주목 누정조에 정도전의 글이 전하는 성의 동쪽 문루인 동루(東樓)일 가능성이 있다.

73) “到南原廣寒樓而坐，其廣大開豁，無與爲比。” 유희춘, 『미암일기초』, 1571년 6월 30일.

62) 유희춘, 『미암일기초』, 1571년 5월 11·16·17일.

63) “有樓隱映於林木間，成俔, 『鎮南樓記』, 『虛白堂文集』 권5, 記.

64) “同登鎮南樓，其高爽廣闊，可坐百數十人。” 유희춘, 『미암일기초』, 1571년 5월 12일.

65) “至亭，俯臨大川，上有寒碧堂。” 유희춘, 『미암일기초』, 1571년 5월 12일.

66) “午時初，四使會于喜景樓，余先升，兵使次之，俱坐北壁，左右水使次之，俱坐東壁，設樂與酒，迭爲行酒。” 유희춘, 『미암일기초』, 1571년 7월 28일.

재의 김제 서부에 해당하는 만경현에서 남겼다. 일기에 따르면 관아의 죽정(竹亭)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서쪽으로 바닷가가, 동쪽으로 김제와 태인이 보였으며 지세가 높고 시원해 정말 좋았다. 유희춘은 같은 날 현령을 불러다 이야기하다 이 누정에 대해 말하게 되었는데, 이름을 취원(聚遠)으로 짓도록 했다.⁷⁴⁾ 이는 관찰사가 직접적으로 누정의 내력에 개입한 사례이다. 이 누정의 기록은 관찬지리지에는 보이지 않지만 유희춘과 가까운 시기의 인물인 구봉령(具鳳齡, 1526~1586)⁷⁵⁾, 김제민(金齊閔, 1527~1599)⁷⁶⁾, 홍적(洪迪, 1549~1591)⁷⁷⁾의 문집에 관련된 시가 전한다. 그 후대의 기록이 보이지 않으므로 존속 기간은 짧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 남원 광한루 전경(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4-2. 경상도 도사 황사우의 『재영남일기』

(1) 명칭이 기록된 누정과 그 위치

『재영남일기』에 누정명이 기록된 사례는 21개 고을, 27개 건물이다. 『미암일기』와 마찬가지로 명칭 없이 루(樓)나 소루(小樓)로 쓴 경우가 더 많았다. 명칭이 기록된 누정은 7건을 제외하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명칭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중 위치가 객사(客舍), 객관(客館), 공관(公館)을 기준으로 기록된 것이 11건, 특정 건축물을 기준으로 기록된 것이 5건, 기타가 4건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3>와 같다.

이 표에서 주목할 점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특정 건축물을 기준으로 위치가 기록된 5건이다. 영천 쌍

청당, 안음 제월당, 양산 쌍벽루, 삼가 정금현 4건의 위치 기준이 되는 건축물은 각각 명원루, 광풍루, 축석루, 징심현, 관수루에 해당하며 이들은 모두 객관을 기준으로 위치가 쓰였다. 나머지 1건인 진주 쌍청실의 위치 기준이 되는 축석루만이 축석성내(矗石城內)로 쓰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누정의 위치 기록 양상은 객관-누정-부속 누정의 인식 구조가 있었음을 드러내며, 이는 실질적인 누정 위치와도 밀접했다.

표 3. 『재영남일기』에 명칭이 기록된 누정의 목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위치 기록

지역	누정명	일기 날짜	『승람』의 위치 기록
밀양부	영남루(嶺南樓)	2월 6일, 7월 8일	在客館東
	망호당(望湖堂)	2월 6일, 7월 8일	-
안동대도호부	영호루(映湖樓)	3월 27일	在府南五里
	수각현(水閣軒)	5월 26일	-
영천군	명원루(名遠樓)	5월 5일	在客舍東南
	쌍청당(雙淸堂)		在明遠樓西
영일현	광원정(廣遠亭)	5월 16일	-
영해도호부	해안루(海晏樓)	5월 21일	在客館東
청송부	찬경루(讚慶樓)	5월 24일	在客館南
풍기군	쌍청현(雙淸軒)	5월 28일	-
함창현	광원루(廣遠樓)	6월 5일	在客館東
상주목	풍영루(風詠樓)	6월 7일	公館東偏
거창현	탁영정(濯纓亭)	6월 20일	-
안음현	광풍루(光風樓)	6월 21일	在客館北
	제월당(霽月堂)		與光風樓連構
산음현	환아정(換鵝亭)	6월 23일	在客館西
진주목	축석루(矗石樓)	6월 25~27일, 9월 20~22일	在矗石城內
	쌍청실(雙淸堂)	6월 25~26일, 9월 20일	在矗石樓西偏
	봉명루(鳳鳴樓)	11월 21일	在客館南
김해부	연자루(燕子樓)	7월 3~4일	在虎溪上
울산군	태화루(太和樓)	7월 6~7일	在郡西南五里
연양현	쌍수정(雙樹亭)	7월 7일	-
양산군	쌍벽루(雙碧樓)	7월 7일	在澄心軒南偏 (澄心軒: 在客館西)
대구도호부	금학루(琴鶴樓)	7월 12일	在客館東北隅
거제현	황취루(黃翠樓)	9월 12일	在客館北
삼가현	정금현(淨衿軒)	9월 23일	在觀水樓西偏 (觀水樓: 在客館南七步許)
영순현	빙강정(憑江亭)	10월 26일	-

74) “遂入官府，登竹亭，改修小舍，甚蕭洒，登眺望遠，西指海浦，東通金堤泰仁，地勢亦頗高爽，甚可喜也。己巳年，縣令李慶元所作也。(중략) 延見縣令崔遇慶，語及此亭，余命名聚遠。” 유희춘, 『미암일기초』, 1571년 7월 14일.

75) 具鳳齡, 「萬頃聚遠閣怨初忠元韻」, 『栢潭集』 권4, 七言律詩.

76) 金齊閔, 「萬頃聚遠亭次盧士雅韻」, 『鰲峯集』 권1, 七言四韻

77) 洪迪, 「題萬頃聚遠亭」, 『荷衣遺稿』, 七言律.

* 명칭에 누와 정이 아닌 현, 당, 실이 들어가는 건물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재영남일기』의 맥락에 근거해 포함하였다. 가령 객사에 부속되어 있다고 판단되거나 쓰임새, 시문의 여부 등에 근거해 잠작하였다.

** 『승람』에 누정명이 달리 적힌 사례는 다음과 같다.

명원루(名遠樓)→명원루(明遠樓), 쌍청실(雙淸堂)→쌍청당(雙淸堂), 태화루(太和樓)→태화루(太和樓), 정금현(淨衿軒)→정금당(淨襟堂)

(2) 고강(考講)을 통한 학업 장려

황사우가 모신 관찰사 두 명은 순행 중에 유생을 불러 경전 학습을 시험하는 고강(考講)을 하였다. 고강은 한 고을에서 한 번 실시하였으며,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았다. 관찰사는 고을에 도착하면 향교에 들르는 것이 상례였는데 고강의 장소는 향교가 아닌 관찰사의 집무처였다. 관찰사가 유생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찾아오게 했던 것이다. 관찰사가 동헌에서 좌기할 때는 동헌에서, 누정에서 좌기할 때는 누정에서 유생의 고강이 실시되었다. 예컨대 누정의 활용이 집중된 여름철, 누정명을 쓴 사례로 보면 영친 명원루⁷⁸⁾, 영해 해안루⁷⁹⁾, 청송 관경루⁸⁰⁾, 함창 광원루⁸¹⁾, 상주 풍영루⁸²⁾, 거창 탁영정⁸³⁾, 산음 환아정⁸⁴⁾, 진주 축석루⁸⁵⁾, 김해 연자루⁸⁶⁾에서 고강이 실시되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삼남 지방의 관찰사는 매년 6월 도회소(都會所)를 열어 강론(講論)이나 제술(製述)로 5인을 뽑아 생원·진사시의 복시에 바로 응할 수 있는 특전을 주었다.⁸⁷⁾ 『재영남일기』에 6월 도회소와 관련된 기사는 없으나 관찰사는 법전에 기록된 학업 장려(獎勸)의 책무를 순행 중의 고강으로 수행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⁸⁸⁾ 양란 이후 고강은 유생이 되어 균역을 회피하려는 자들을 걸러내려는 목적으로 강화되었다.⁸⁹⁾ 그러나 『재영남일기』에 낙강(落講)이나 균역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고 아이들에게 고강을 했던 기록⁹⁰⁾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교화와 학업 장려의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강은 누정에서만 이루어진 고

유의 활용 행위로 볼 수는 없으나 관영 누정의 접근 권한과 건축 형식, 관찰사의 지위, 외부로의 노출 등을 고려할 때 유생과 지역민들에게 특별한 사건으로 인식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부속 건물들의 존재와 활용

앞서 명칭이 기록된 누정의 검토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위치 기록에 근거해 객관-누정-부속 누정의 인식 구조가 있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황사우의 일기에 이와 관련해 부속 건물의 활용 양상이 나타난다.

그 대표적 사례로 영남루(嶺南樓)와 축석루(矗石樓)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영남루를 살펴보자. 아래는 1519년 7월 8일, 밀양에 고위 관원인 관찰사와 좌수사, 우병사가 모였던 당시의 기록이다.

관찰사가 영남루에 도착하였다. 이때 우병사 김극성이 먼저 들어와 북별실(北別室)로 내려갔고, 좌수사는 나와 함께 후북별실(後北別室)로 내려갔다. 모두 관리들의 춘추 포폄을 의논하려 해서였다. 관찰사는 망호당(望湖堂)으로 내려가고, 나는 소루(小樓)로 내려갔다. 관찰사, 좌수사, 우병사 세 분이 루(樓)에 앉으니 나와 여러 사람들이 모두 뵈기를 청하고 나왔다.⁹¹⁾

이 기사에서 영남루 영역의 공간 지칭어는 북별실(北別室), 후북별실(後北別室), 망호당(望湖堂), 소루(小樓), 루(樓) 다섯 가지가 등장한다. 영남루에 도착한 관원들은 각기 다른 곳으로 흩어졌는데, 우병사는 북별실, 좌수사는 후북별실, 관찰사는 망호당으로 ‘내려가고 [下]’ 황사우는 후북별실에 있다가 소루로 옮겨 내려갔다. 이윽고 흩어져 있던 관원들은 루(樓)에 모인다. 공간의 지칭어 중 당호가 드러난 것은 최상급자인 관찰사가 내려갔던 망호당뿐이다. 망호당은 연산군 때인 홍치연간(1488~1505년)에 지어졌다가 1542년 고쳐 지으며 능파당(凌波堂)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본채 옆에 터를 둔우고 당 1칸을 증축해 본채와 연결함으로써 이동하기 편하게 개조하였다[그림 2 참조].⁹²⁾ ‘내려간다’라는 표현이나 별실, 소루라는 용어로 볼 때, 영남루에는 별도의 부속 건물이 여러 채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91) “使相至嶺南樓 時 右兵相金克成先入 下北別室 左水使 偕僕以下 後北別室 皆議春秋也 使相下望湖堂 僕下小樓 三使坐樓 僕及諸公皆 請謁 出” 황사우, 『재영남일기』, 1519년 7월 8일.

92) 이호열, 「밀양 영남루 연혁 및 건축형식 변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9(1), 한국건축역사학회, 2000, 12~13쪽.

78) 황사우, 『재영남일기』, 1519년 5월 5일.

79) 황사우, 『재영남일기』, 1519년 5월 21일.

80) 황사우, 『재영남일기』, 1519년 5월 24일.

81) 황사우, 『재영남일기』, 1519년 6월 5일.

82) 황사우, 『재영남일기』, 1519년 6월 7일.

83) 황사우, 『재영남일기』, 1519년 6월 20일.

84) 황사우, 『재영남일기』, 1519년 6월 23일.

85) 황사우, 『재영남일기』, 1519년 6월 26일.

86) 황사우, 『재영남일기』, 1519년 7월 4일.

87) “諸道觀察使量擇道內校生, 每六月, 設都會所, 差文官三員(教授或 閑散), 或講論或製述, 優等者(慶尙道·全羅道·忠清道, 各五人, 其餘道, 各三人), 啓聞, 直赴生員或進士覆試.” 『經國大典』 권3, 禮典, 獎勸.

88) 관찰사의 고강 관련 내용은 동시기 『중종실록』 기사에도 등장한다. 『중종실록』 권33, 중종 13년 5월 28일; 『중종실록』 권63, 중종 23년 10월 28일; 『중종실록』 권89, 중종 34년 1월 19일.

89) 이연진, 「인조-숙종대 교생고강(校生考講) 제도 연구」, 『교육사학연구』 23(2), 교육사학회, 2013, 95~131쪽.

90) 황사우, 『재영남일기』, 1519년 5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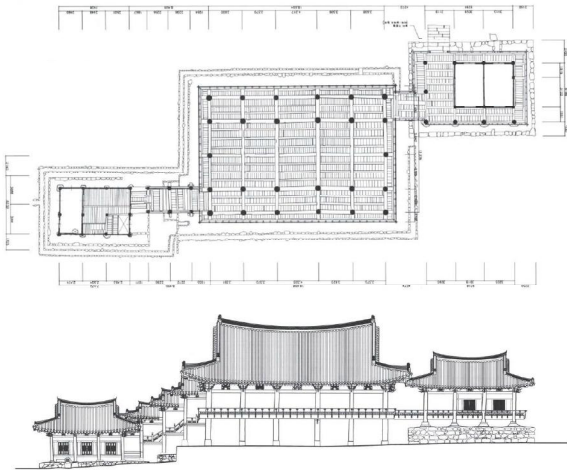


그림 2. 영남루 전체 평면도(위)와 남측면도(아래). 도판 오른쪽 부속 건물이 망호당을 중건한 능파당 (출처: 문화재청, 『미암 영남루 실측조사보고서』, 1999)

다음은 축석루의 사례다. 아래는 1519년 9월 20일, 밤늦게 축석루에 도착한 관원들이 각기 숙소로 흩어지는 내용이 담긴 기록이다.

진주까지 40여 리를 와서 관아에 도착하니 밤이 이미 12시나 되었다. 어사(御使)는 영창역에서 돌아와 쌍청당(雙淸堂)으로 내려가고, 관찰사는 축석소루(矗石小樓)로 내려갔으며, 집의를 겸직하는 이는 청심당(淸心堂)으로 내려가고, 나는 일월당(日月堂)으로 내려가서 잤다. 곤양 군수는 들어와서 겸직의와 함께 잤다.⁹³⁾

이 기사에는 쌍청당(雙淸堂), 축석소루(矗石小樓), 청심당(淸心堂), 일월당(日月堂)이라는 공간 지칭어가 등장한다. 현재 모습과 달리 축석루 양 옆에 부속 건물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여타 사료로도 확인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축석루 서쪽에는 쌍청당과 임경헌(臨鏡軒)이 있었고, 동쪽에는 능허당(凌虛堂)과 청심헌(淸心軒)이 있었다.⁹⁴⁾ 하수일(河受一, 1553~1612)의 문집에는 “동쪽에 청심(淸心)과 함옥(涵玉), 서쪽에 관수(觀水)와 쌍청(雙淸)이 모두 손모아 축석루에 인사드리는 것이 마치 천하고 미숙한 자가 준귀한 자를 뵈는 것 같았다”⁹⁵⁾라는 구절이 있다. 인용한 일기 속에서 관찰사가 머물렀던 축석소루와 황사우가 머물렀던 일월당은 여타 사료에 잘 보이지 않으나 어

93) “至州四十餘里 到官 夜已三更 御使自永昌還入 下雙淸堂 使相下 矗石小樓 兼執義南下淸心堂 僕下日月堂宿 昆陽入 與兼執義同宿” 황사우, 『재영남일기』, 1519년 9월 20일.

9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0, 慶尙道, 晉州牧.

95) “東爲淸心涵玉, 西爲觀水雙淸, 皆拱揖斯樓, 若賤幼者之朝尊貴也.” 河受一, 『矗石樓重修記』 『松亭集』 권4, 記.

사가 머물렀던 쌍청당은 서쪽에, 겸직의가 머물렀던 청심당은 동쪽에 있던 부속 건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사진에서 축석루의 동쪽 부속 건물이 남아있던 모습이 확인된다[그림 3 참조].



그림 3. 축석루 동쪽 부속 건물이 남아있던 모습 (출처: Koto Bunjiro, “Journeys through Korea”, *The Journal of the College of Science*, Imperial University of Tokyo, Japan 26(6), 1909) *축석루를 중심으로 원본 사진을 잘라냄

영남루와 축석루 외에도 안음현의 사례도 참고할만하다. 안음현에서 황사우는 관찰사가 “광풍루(光風樓)에서 좌기하였고 나는 제월당에 기거하였다. (중략) 관찰사는 광풍루에서 자고 나는 제월당에서 잤다”⁹⁶⁾라고 썼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광풍루는 객관의 북쪽에 있었고 제월당은 “광풍루와 이어서 지었다[與光風樓連構].”

영천군 명원루(名遠樓)⁹⁷⁾의 부속 누정인 쌍청당(雙淸堂)도 황사우가 잔 곳으로 언급된 바 있다.⁹⁸⁾ 서거정은 명원루의 기문에서 “동별실(東別室)을 고쳐 짓고 소헌(小軒)을 달아 청량당(淸涼堂)이라 이름지었다. 또 서별실(西別室)을 크게 키워 소헌(小軒)을 달아 쌍청당(雙淸堂)이라고 했는데 모두 몹시 정미했다”⁹⁹⁾라고 하였다. 두 별실은 현재 남아있지 않으나 쌍청당과 짝을 이뤘던 청량당의 식민지 시기 사진을 보면 방과 마루를 갖춘 건물의 모습을 알 수 있다[그림 4·5].

96) “坐光風樓 僕寄霽月堂 (중략) 使相宿光風樓 僕宿霽月堂” 황사우, 『재영남일기』, 1519년 6월 21일.

97) 명원루는 1368년(공민왕 17) 부사 이용(李容)이 창건하였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고, 1637년(인조 15) 군수 한덕급(韓德及)이 누각 15칸, 협각 3칸을 중창하여 이름을 ‘조양각’이라 고쳤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영천조양각(永川朝陽閣)』,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98) 황사우, 『재영남일기』, 1519년 5월 5일.

99) “改構東別室, 翼以小軒, 名曰淸涼堂. 又關西別室增大之, 翼以小軒, 名曰雙淸堂, 皆極精微.”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2, 경상도, 영천군.



그림 4. 영천 조양각(명원루) 전경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그림 5. 조양각의 별실인 청량당 전경(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4) 관찰사의 명으로 축석루에서 공무를 처리

1519년 9월 22일, 관찰사는 소루(小樓)에 머물고 황사우는 관찰사의 명으로 축석루에서 홀로 공무를 처리하였다.¹⁰⁰⁾ 도사가 관찰사 없이 루에서 일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관찰사가 종기로 인해 몸이 아파 제대로 업무를 보기 어려웠던 까닭으로 보인다. 전날인 9월 21일에는 고위 관원이자 접객의 대상인 어사와 집의가 축석루에 머물고 있어 황사우는 일월당에서 업무를 보았는데, 이날 두 관원이 떠난 뒤에는 관찰사가 축석루로 올라와 업무를 보라고 명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전인 9월 18일과 19일에는 종기로 몸져 누운 관찰사를 대신해 황사우가 객관의 대청에서 공무를 처리하기도 했다.¹⁰¹⁾ 도사가 관찰사의 업무를 대신할 때는 그에 합당한 자리를 마련했던 것으로 보이며, 축석루와 같이 부속 건물인 여럿인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루가 특별한 격을 갖추고 있었음을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다.

(5) 경관의 감상과 개입: 밀양 영남루, 울산 태화루, 산음 환아정, 진주 축석루, 거창 탁영정

황사우는 공무 일정에서 잠시 벗어나더라도 명성이 높은 관영 누정을 지나치지 않고 따로 방문했다. 도사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밀양에 도착한 황사우는 관찰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따로 영남루를 구경하러 갔다. 황사우는 영남루의 부속 건물인 망호당에서 여러 선비들과 함께 술자리를 열었으며, 날이 저물기 전 관찰사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¹⁰²⁾ 또한 관찰사와 잠시 떨어져 울산에 도착하자마자 태화루에 올라가 구경하

였다.¹⁰³⁾ 순행이라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러 품계가 차이나는 상급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명소의 풍경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 외에도 황사우는 유희춘에 비해 경관을 감상한 기록을 비교적 다수 남겼다. 산음의 환아정[그림 6 참조]에 대해서는 “경치가 매우 좋았다. 이곳은 물이 청결하고 산도 수려하였으며, 토지도 비옥하기가 도내에서 으뜸이었다”¹⁰⁴⁾라고 하여 누정에서의 경관 감상을 지역 산수의 아름다움으로 잇기도 했다. 축석루의 쌍청당에서는 칠언절구 한 수를 지었으며,¹⁰⁵⁾ 거창 탁영정에 대해서는 “띠 풀로 지붕을 덮고, 물가에 자리해 대단히 고요하였다”¹⁰⁶⁾라고 평하기도 했다.



그림 6. <환아정>,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 9면, 30.4 x 39cm,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4-3. 소 결

유희춘은 전라도 관찰사로 205일을 근무하는 동안 42개 군현을 순행하며 17개의 관영 누정 이름을 『미암일기』에 기록했고, 황사우는 경상도 도사로 392일을 근무하는 동안 87개 군현을 순행하며 27개 관영 누정의 이름을 『재영남일기』에 기록했다. 황사우가 더 오랜 기간 많은 군현을 순행했던 만큼 더 많은 관영 누정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두 일기에 등장한 관영 누정의 위치를 살피기 위해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검토한 결과 상당수는 객관을 기준으로 위치가 기록되었다. 주목할 만한 차이는 『재

100) “使相坐小樓 (중략) 行公事于羸石樓 使相命也 日暮 下清心堂 황사우, 『재영남일기』, 1519년 9월 22일.

101) “使相以腫氣蛭仍留 僕終日在館大廳行公” 황사우, 『재영남일기』, 1519년 9월 18일. “早朝 謁使相于逆旅 退在大廳 行公事” 황사우, 『재영남일기』, 1519년 9월 19일.

102) “午後 白使相 歸賞嶺南樓 坐望湖堂 設小酌從簡 只彈琴獨歌 李軌 李遠 金時弼 孫台弼 李騰 柳世湄 梁澹 日晚 郭宇亦來 僕只設初筵 未暮而還上幕” 황사우, 『재영남일기』, 1519년 2월 6일.

103) 황사우, 『재영남일기』, 1519년 7월 6일.

104) “亦絕勝也 大抵此水源清潔 山亦奇秀 土地亦饒 甲於道內” 황사우, 『재영남일기』, 1519년 6월 23일.

105) “月明漁棹泊空江 天影潭光鎖霧窓 客到更尋奇色處 碧山飛割白鷗雙 [달빛 아래 고기잡이배 빈 강에 정막하고 / 하늘 빛 못 물 빛이 쌍청당을 가리네 / 나그네로 와서 다시금 명승치를 찾으니 / 푸른 산 가로질러 한 쌍의 백구 날아가네]” 황사우, 『재영남일기』, 1519년 6월 26일.

106) “以茅蓋焉 臨水極靜” 황사우, 『재영남일기』, 1519년 6월 20일.

영남일기』에 부속 누정으로 보이는 사례가 다수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위치 기록이 객관 아닌 타 누정을 기준으로 쓰여 있거나 영남루, 축석루 등에서 일행이 여러 채의 건물을 활용하는 일기 기록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이는 황사우가 감영 조직 전반을 챙기는 실무자이자 하급 관원으로서 일행의 공간 활용을 유희춘보다 자세히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미암일기』에서 관영 누정의 활용 사례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유희춘이 자기보다 품계가 높은 실록 봉안사를 모셨던 일이다. 유희춘은 전라도의 본영인 전주를 대표하는 관영 누정을 3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올라 경관을 감상하고 연회를 열었다. 세 누정의 잇따른 활용은 나름대로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뒤로 갈수록 거리는 더 멀게, 경관은 더 트이게, 시간은 더 늦게 하여 다채로운 감상을 즐겼던 것이다.

『미암일기』와 달리 『재영남일기』에서만 자주 확인되는 누정의 활용 양상은 고강이다. 유희춘은 제술(製述)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거나¹⁰⁷⁾ 유생들에게 붓, 먹, 종이, 음식과 같은 상을 내리는 경우는 다수 기록했지만 고강을 했다고 쓴 경우는 찾기 어렵다. 반면 황사우가 모셨던 관찰사들은 순행 중 누정에 유생들을 불러 고강을 시행하곤 했다. 유희춘은 무이루에서 유생 시절상을 받았던 일을 추억하여 무이루를 활용한 기록을 7일이나 남겼다. 누정에서 행해진 관찰사의 고강은 많은 유학자들의 기억에 자취를 남겼을 것이다.

관영 누정은 소통과 교류의 배경인 동시에 위계를 가시화하는 장치이기도 했다. 관찰사는 당대 최고의 관원이었으며 순영은 움직이는 관청 그 자체였다. 여러 지위의 관원과 손님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일이 다반사였을 것이다. 누정에서 위계는 『미암일기』의 회경루 사례처럼 단일 공간 내 좌석의 상대 배치로 구현되기도 했으며, 『재영남일기』의 영남루, 축석루 사례처럼 주요 누정과 부속 건물 중 머무는 공간의 배분으로 구현되기도 했다. 또한 관찰사가 있는 경우 도사와 같은 하급 관원은 누정에 좌기하지 않는 것이 상례였는데, 『미암일기』의 읍취루나 『재영남일기』의 축석루 사례에서 보듯 관찰사가 일시적으로 도사의 등루나 좌기를 명함으로써 그 권한과 맡은 일의 중요함을 내보이기도 했다.

관영 누정이 지방의 명승으로 널리 알려졌던 만큼 두 일기에는 누정의 경관을 감상한 기록이 엿보인다. 유희춘은 광한루에 올라 소회를 남기기도 했고 당호가 없던 누정의 경치에 반해 취원(聚遠)이라는 이름을 지

어주기도 했다. 황사우는 관찰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영남루와 태화루를 따로 구경했으며 누정별 경관의 특징을 포착해 짧은 감상을 남기기도 했다.

5. 결론

본 연구는 조선 전기 관영 누정들이 전국각지에 다수 지어졌던 현상의 이면을 이해하고자 순행(巡行)이라는 업무 형태를 중심으로 16세기 전반기의 두 일기를 분석함으로써 관찰사 일행이 누정을 활용한 구체적 양상을 제시하였다. 전라도 관찰사 유희춘의 『미암일기』와 경상도 도사 황사우의 『재영남일기』는 관영 누정의 건립 결정권자이자 주요 이용자였던 관찰사 일행이 전란 이전 누정을 활용한 양상이 드러나는 자료로서 중요하다.

관찰사의 순행은 지위에 걸맞은 규모와 격식을 갖췄으나 노년의 문인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이동량과 업무량을 동반했다. 이때 관영 누정은 객사 가까이 또는 읍치 근방에 위치한 업무 겸 연회 공간으로서 고단한 일정을 달래는 생활 환경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이와 관련해 두 일기에서 누정 또는 루를 활용한 기록은 후서기인 5~7월 두 달 동안 집중되며, 『미암일기』에 따르면 이는 온도·습도의 체감과 밀접하다.

누정들은 대개 집무와 연회 공간으로 쓰이는 한편, 몇 가지 특기할만한 활용 양상이 확인되었다. 한 고을에 관영 누정이 여럿 있을 경우 위치와 경관 등을 고려해 감상의 순서를 두기도 하였으며, 유생의 고강을 매개로 관찰사가 누정을 학업 장려의 장소로 쓰기도 하였다. 관영 누정은 소통과 교류의 배경인 동시에 위계를 가시화하는 장치이기도 했다. 이는 단일 공간 내 좌석 배치로 구현되기도, 주요 누정과 부속 건물 중 머무는 공간의 배분으로 구현되기도 했다. 두 일기의 저자는 명승으로 유명한 누정에 대해 감상평을 남겼으며, 황사우의 경우 상급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감상 일정을 따로 챙기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듯 조선시대 관영 누정은 단지 지방관의 여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관찰사 일행이 무리한 일정 속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었다. 두 일기가 고위 관원의 개인 기록인 탓에 대규모 순행 인원의 일부에만 관심을 두고 기록 대상으로 삼았으며 날짜에 따라 서술 수준이나 정보가 고르지 않다는 점은 자료상의 한계이다. 추후 다른 자료들과의 교차 검토를 통해 논의의 깊이와 범위를 확

107) 유희춘, 『미암일기초』, 1571년 6월 2일.

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건축사 연구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일기를 통해 관료의 일상에 주목했다는 점, 건축물의 형태보다 활용에 주목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먼저, 관영 건축을 관한 자료로써 연구할 경우 법식, 건설 과정, 관리 차원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으나 당대인의 인식과 실제 기능, 활용 양상의 확인은 어렵다. 본 연구에서 관영 누정이 관찰사의 관리 대상을 넘어 건강 및 경관과 밀접한 생활 문화 공간이었음을 밝혔듯 일기는 현존 유구와 관한 자료가 내보이지 않는 제도와 건축물 사이의 인간 활동을 드러내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전근대 건축 고증 연구에서 원형의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물게 다루어진 활용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건축물의 형태와 활용은 긴밀하게 연동해 상호변화를 일으키지만 건축사학의 유물론적 성향과 복원 실무의 영향으로 인해 전자가 보다 중시되어 왔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검토한 일기 자료에 건축물의 형태 묘사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 그 형태보다는 활용이나 상징의 측면이 더 기록할만한 정보였음을 방증한다. 유산 관리에서 활용의 중요성이 점차 부상하고 있는 현재, 고증의 차원에서 활용에 주목해 자료들을 새롭게 검토하고 그 양상을 규명한다면 보다 넓은 지평과 새로운 기회들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世宗實錄』
- 『世祖實錄』
- 『中宗實錄』
- 『經國大典』
- 『新增東國輿地勝覽』
- 具鳳齡, 『栢潭集』
- 金齊閔, 『鰲峯集』
- 柳希春, 『眉巖日記草』(담양향토문화연구원 편역, 『眉巖日記草』 제3집, 담양, 담양향토문화연구원, 1994)
- 成倪, 『虛白堂文集』
- 丁若鏞, 『牧民心書』
- 河受一, 『松亭集』
- 洪迪, 『荷衣遺稿』
- 黃士佑, 『在嶺南日記』(황위주 역, 『脫草譯註』在嶺南日記, 대구, 嶺南文化研究院, 2006)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34권,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5
- 김경숙, 「15세기 정소(呈訴) 절차와 관찰사의 역할」, 『역사와 현실』 59, 한국역사학회, 2006, 69~99쪽
- 김경숙, 「16세기 전라도 관찰사의 순행길」,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역사문화학회, 2010, 43~86쪽
-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한국의 탐구 8,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999
- 김창현, 『누정 산책』, 서울, 민속원, 2019
- 문화재청, 『밀양 영남루 실측조사보고서』, 1999
- 박종기, 『새로 쓴 5백 년 고려사』, 서울, 푸른역사, 2008
- 박준규, 「韓國의 樓亭巧」, 『호남문화연구』 17,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87, 1~27쪽
- 성재만, 「조선시대 객사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조경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송재용, 「『미암일기』의 서지와 사료적 가치」, 『퇴계학연구』 12, 단국대학교퇴계학연구소, 1998, 117~151쪽
- 심경호,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종류와 기록자 계층」, 『동아한학연구』 14,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2020, 391~456쪽
- 여상진, 「朝鮮時代 客舍의 營建과 性格 變化」,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여상진, 「18世紀 忠淸監司의 監營處 및 道內 邑治施設 利用: 交龜, 巡歷 및 行禮를 中心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9(1), 한국산학기술학회, 2008, 143~153쪽
- 여상진, 「『完營日錄』에 나타난 19C초 전라감사의 집무와 전주부 관영시설 이용」,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2),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 658~665쪽
- 여상진, 「지방 邑治施設 복원 및 활용을 위한 조선시대 지방관의 日記類분석 기초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7),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 2676~2686쪽
- 여상진, 「18C末 황해감사 徐邁修의 집무와 해주목 관영시설의 이용: “海營日記”(徐邁修)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9),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 4244~4252쪽
- 여상진, 「18~19C초 황해도 관찰사의 순력(巡歷)과 도내 읍치시설 이용」,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9),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5835~5843쪽
- 여상진, 「18세기 함경도 관찰사의 순력(巡歷) 노정과 주요 업무」,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9), 한국산학기술학회, 2017, 84~91쪽
- 이수진,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서울, 민음사, 1989
- 이수환, 「조선전기 慶尙監司와 都事의 巡歷과 통치기능: 在嶺南日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3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513~541쪽
- 이연진, 「인조-숙종대 교생고강(校生考講) 제도 연구」, 『교육사학연구』 23(2), 교육사학회, 2013, 95~131쪽

35. 이왕기, 김석희, 「미암일기에 나타난 유희춘가옥의 건축적 추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8(4),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6, 13~20쪽
36. 이연노, 「2000년 이후 관아와 객사건축에 관한 연구성과 및 과제」,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8, 287~288쪽, 23(2), 교육사학회, 2013, 95~131쪽.
37. 이은창, 「朝鮮時代の 官衙園林研究 : 嶺湖南地方의 官衙園林遺跡을 中心으로」, 『연구논문집』 29(1),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1984, 185~256쪽
38. 이종숙, 「조선시대 개인 일기의 현황과 특징」, 『문화재』 52(4),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142~153쪽
39. 이호열, 「16世紀末 士大夫家 客廳 造營事例 研究: 柳希春의 『眉巖日記草』를 中心으로」, 『건축역사연구』 1(2), 1992, 9~38쪽
40. 이호열, 「밀양 영남루 연혁 및 건축형식 변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9(1), 한국건축역사학회, 2000, 7~25쪽
41. 전영옥, 「조선시대 官營園林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42. 정연식, 「조선조의 탈것에 대한 규제」, 『역사와현실』 27, 한국역사연구회, 1998, 177~208쪽
43. 정정남, 「16·17세기 사대부주택의 공간구성과 활용」,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44. 최중희·성재만, 「조선시대 객사의 입지 및 배치, 조경적 특성: 벽계관, 전주객사, 금성관, 진남관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1), 한국전통조경학회, 2009, 74~83쪽
45. 한동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누정조의 사적(史的)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2021, 15~18쪽
46. 황상돈, 「朝鮮時代 官衙庭園에 關한 研究」,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47. 황상돈·박찬용, 「조선시대 읍성의 관아정원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7(3), 한국정원학회, 1999, 53~66쪽
48.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encykorea.aks.ac.kr/>.
49.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왕조실록사전』,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3-CKD-1240001>.
5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s://kyudb.snu.ac.kr/>.

접수(2023.07.20.)

수정(2023.11.28.)

게재확정(2023.12.10.)